

## 머리글

### - 정치(政治)에 대한 세 가지 사편(思片) -

1. 지상 생활에 있어서 인간을 가장 크고 보편적인 꼬나풀로 얹어매는 것이 정치(政治)가 아닌가 한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정치라는 것이 인간이 누릴 권력이나 향유할 그 무엇이 아니라 속박을 주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된다.

사실 일상에서 피부에 와닿는 것이나, 몇 번 머리를 굴리고 생각해 봐도 정치는 그렇게 반갑거나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다.

정치란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 스스로를 구속시키는 장치이다. 그러면 인간은 왜 자기 속박적인 정치라는 그물을 만들어 스스로를 둘러썩우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실제로 정치에 대한 이런 류의 반문(反問)과 이론(異論)이 있어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 Anarchism)가 있었고 과거 어디에선가 부분적인 시도도 있어 보았지만 그 결국은 혼란(混亂, Chaos)으로 귀착되고야 말았다. 정치라는 것은 법(法)을 가지고 크게는 국가라는 공동체를, 작게는 지방 행정의 공동체를 운영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속박하는 것은 이 법과 그것의 집행이다.

그러면 인간은 왜 법을 만들게 되었고 그것으로 정치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일반은총으로 주신 양심(良心)과 도덕(道德)이 살아있지 못하므로 질서와 평화를 위해 법과 정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류는 양심이 화인(火印) 맞고 도덕과

인륜(人倫)이 무너져 그대로 두면 질서를 유지하거나 자연적인 선(善)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인위적인 제어장치를 만들어 한편으로는 구속을 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위적인 질서와 평화를 유지해 가게 된 것이다. 법과 정치는 비교적 선한 사람에게는 양심과 도덕으로 살 수 있으므로 구속이 되는 것이요, 비교적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으므로 구속이 되는 것이다. 법과 정치는 전자에게는 불필요악(不必要惡)이고 후자에게는 필요악(必要惡)이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하므로 법과 정치가 필요하다. 삶의 영역이 부딪히고 이익과 자유가 충돌될 때 질서와 조화를 인위적으로나마 이루기 위해 이런 것은 요구된다. 인간은 다른 인간과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하면서도 또 대체로 보아 극도로 이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Kant의 말을 빌리면 인간은 '비사회적 사회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비사회적 사회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Aristoteles는 인간을 'Zōon Politikon' - 사실 이 용어는 인간이 '정치적 존재'라는 것보다 'Polis적 존재'라는 것에 더 근접한다 - 이라 했고, Cicero도 그것을 따라 인간을 'homo politicus' 라고 규정한 것이다.

2. 정치는 인간이 만든 제도이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상의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일반은총적인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로 지음 받았으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조화로운 연합이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려로 이런 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Augustinus는 날카로운 성숙이분법(聖俗二分法)으로, 정치적 공동체는 '지상의 나라(civitas terrena)'라 했고, 나아가 '마귀의 나라(civitas diaboli)'라 하여 정치를 하나님의 일반은총과 결부시키지 못하였다. 중세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분법을 고수하면서 정치권력

을 교회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다. 교회와 정치의 이러한 상하적(上下的) 결합은 교회의 영적인 요소와 국가의 정의적 요소를 다 침해하는 것이므로 종교개혁자들은 이 두 영역을 구분하고자 했다. 종교개혁의 사상을 연구하는 이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정교 분리(政教分離)’를 주장했다고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의 사상은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구분(政教區分)’인 것이다. Luther가 이 양 영역의 구분성을 강조한데 비해 Calvin은 교회와 정치영역이 다 그리스도의 우주적 주권 하에 있음을 강조했다.

Calvin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육적인 일을 돌보도록 정부를 주시고 영적인 일을 돌보도록 교회를 주셨다고 생각했다. 이 양 영역은 지상의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영역으로서 하나님은 이것들에 주권을 위임하시고 치리(治理)의 칼을 주셨다고 했다.

정부는 그 칼로 세속적 의(義)를 이루고, 교회는 그 칼로 영적 의(義)를 이룬다고 했다. 이 양 영역은 그 기능과 역할에서 엄밀히 구분 되면서도 서로 배제하지 않으며, 서로 장악하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속 정부는 물질적, 지상적, 현세적 삶을 보존하고, 교회는 인간으로 하여금 참다운 의를 성취하므로 영성을 얻게 한다. 그래서 정치는 세상을 보존하고, 교회는 세상의 구원에 이바지 한다.

영역주권(領域主權)을 말한 A. Kuyper는 정치를 지상의 3중적 영역(국가, 사회, 교회)의 최상층부에 있는 주권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런 주권의 근원은 인민주권(popular-sovereignty)이나 국가주권(State-sovereignty)이 아니라 신적 주권(divine sovereignty)이라고 했다. 그리고 앞의 두 가지 주권론에는 인간의 자기 비하가 놓여 있고 무신론과 동일한 것이라 했다.

Luther와 Calvin, 그리고 Kuyper가 다같이 주장하는 성경적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지상의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지배할 권한이 없으

며, 따라서 바른 주권은 하나님의 위임을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권의 행사나 복종의 수행은 하나님이 부과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다.

사람을 지배하는 권위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고, 지상의 모든 위정자의 권위도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만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권의 신적 기원은 근세국가에서 교황권을 누른 제왕들처럼 스스로 방자하여 높아지려고 내세운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을 지원하는 것이나 그런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다.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다 함은 위정자가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권한을 제한하고 통제하여 그를 겸허케 하는 뜻을 지닌다.

지상의 모든 주권자는 그 주권을 위임한 분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그분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써야 하며, 그분이 지시한 목적과 의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것을 벗어날 때 주권자의 주권행사는 근본적으로 그 정당성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3. 근대화(近代化)는 산업화(産業化)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세속화(世俗化)의 뜻도 지니고 있다. 세속화를 문화사적으로 얘기하자면 사회의 중심에 종교가 있지 않고 정치와 같은 ‘세속적인 것’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화의 물결이 지나가고 후기 근대주의(post-modernism)의 시대에 접어든 서방 선진국은 이제 정치가 더 이상 사회의 중심에 있는 것 같지 않지만(이를테면 스위스나 스칸디나비아의 제국들) 우리나라처럼 여전히 근대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나라에서는 가히 정치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정치만큼 막강하고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도 영역도 없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정치 만능주의(政治萬能主義)가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운위되곤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의 인류사를 뒤돌아 보면 정치 만능주의를 주장한 이들은 한결같이 과격한 이데올로기를 주장한 이들이나 정치 모사꾼이든지 아니면 인위적

으로 역사를 바꿔보려는 이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비스마르크나 히틀러, 그리고 스탈린도 정치 만능꾼들이며, 플라톤과 마르크스, 그리고 싸르트르도 정치 만능주의에 서 있는 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상의 그 무엇도 만능이 아니듯이 정치도 만능이 아니며 또 어떠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오로지 선한 것이라는 칭호를 들을 만하게 없다.

1968년까지 정치에 거의 광적으로 뛰어들고자 했던 유럽의 학생운동 세대들은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치에 대한 현저한 무관심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정치적 통제를 통한 구조화나 획일화를 배경하고 Sartre의 사상에서 그 절정에 달한 정치 참여의 낙관론을 팽개쳐 버리게 되었다.

이들은 불란서혁명이나 러시아혁명의 소위 ‘황금시대’에도 혁명 주체들의 감미로운 구호 하에는 욕망의 지배가 구사하는 미묘한 전략이 숨어 있음을 보았다.

특히 그들이 집중적으로 비판했던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미명 하에 권력 본능의 모순적인 구조가 감춰져 있음을 보았다.

불란서 신철학자들인 Deleuze와 Guattari는 Freud의 심리 분석을 도입하여 정치의 영역을 욕망의 무의식적 구조로 환원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모든 주체의 내면으로는 욕망의 충동적인 흐름이 관류하고 있는데, 정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욕망장치의 그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적인 것이든 혁명적인 것이든 모든 정치적 담론(Diskurs)은 아무런 가치론적 내용이 없는 욕망의 자연주의에 의해 왜해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예리한 시각은 정치를 지나치게 욕망구조로만 이해한 감이 없지 않지만 타락한 인간이 어떤 인위적 체도를 통해서든지 그것을 선의 도구로 활용하기보다 욕망 성취의 수단으로 오용하려고 하는 점을 보여 준다. 정치 만능주의를 주창할 때 우리는 개인의 죄와 비윤리로 돌려져

야 하고 귀착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애매한 제도나 정치로만 돌려지는 회피적 의식을 볼 수 있다. 정치는 제도는 수정할 수 있으나 인간의 마음은 돌릴 수 없으며, 또 개인이 의식과 삶에서 취할 자세는 정치라는 제도로 돌려져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우선 정치는 인간의 본질, 공동체의 의미, 인간관계의 회복, 선의 참모습, 정의의 뜻, 주권의 의미와 역할 등을 바르게 제시하는 성경의 원리 위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간과 사회, 국가 등 지상의 것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위임되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통치만이 하나님의 주권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영적 정부인 교회와 세속정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위임된 주권의 드러난 통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겨진 통치가 역사 가운데서 줄곧 있어움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경륜과 섭리가 인간 정치의 저 피안에서 강하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세상 정치란 소꿉장난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기독교와 정치’라는 정치학 특집의 이번 「통합연구」는 정치원리를 다룬 한 편의 논문과 각 지역의 정치를 다룬 네 편의 논문으로 이뤄져 있다.

이문식 목사는 ‘예수의 정치’에서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당시의 정치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았으며 그의 정치적 태도와 사상을 성경적 정치원리로 끄집어내고 있다.

백종국 교수와 허문영 박사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다루고 있는데 전자

는 기독교인의 정치의식을, 후자는 통일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백 교수는 1992년의 정치의식 조사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비판적 보수주의'와 '정치적 냉소주의'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런 태도는 교회의 이원론적 신앙교육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바른 정치의식을 위한 재교육 등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허 박사는 조국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그리고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기술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통일 전망을 다루는 등 일반론을 개진하면서 통일을 위한 일반인, 대학생, 그리고 기독교인의 역할을 적고 있다.

추태화 박사는 히틀러 치하의 국가사회주의 시대의 독일의 기독교 문학을 다루면서 억압의 정치 속에서 기독교인이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저항을 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쓰고 있다.

나의 줄고는 남아공화국의 인종차별 문제와 최근의 극적인 변화를 다루고 인종차별의 사상을 주장하고 그런 제도의 신학적 기초를 제공한 신학 사상과 비판적 태도를 취한 교회들의 입장을 살피고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다같이 존귀하고 평등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다섯 편의 특집 원고 외에 일반논문으로 성경적 경제관을 체계적으로 다룬 조성표 교수의 글과 멀리 캐나다에서 우리 「통합연구」를 위해 보내준 Robert MacLarkey 교수(Redeemer College)의 Helmut Thielicke의 성윤리를 다룬 논문도 원문으로 실었다.

그 밖에 이홍용 교수와 윤용규 선생의 Skillen과 Ellul의 저서에 대한 좋은 서평도 실었다. 그간 편집 담당으로 봉사한 김미남 간사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번 호부터 편집을 맡은 김혜정 간사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1993년 초가을에  
편집인 전 광 식